



우석대, 한의사 국가시험 3년 연속 100% 합격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제79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졸업예정자 32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석대는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3년 연속 100% 합격률을 기록하며 한의학 명문대학임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따르면 제79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797명의 응시자 중 773명이 합격해 9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송범용 한의과대학장은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둔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교수와 학생들이 방과 후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틈틈이 실력을 다져온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지난달 2023년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4년 인증'을 부여받았다. /장은성 기자

2족 보행 마라톤 로봇 등 국제대회서 인정

전북기계공고, 창작 부문 은상·동상 수상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임인형)는 지난 1월 16~19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2023년 제25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창작 부문(Creative Category)에 2팀이 참가해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The Olympics'를 메인테마로 모터 제어 및 프로그래밍을 통한 2족 보행 마라톤 로봇을 제작한 2학년 강지현 학생이 은상을, 또 여러 상황에 맞는 5개의 센서를 적용한 올림피 스마트 경기장을 제작한 1학년 이남기·김범수 학생이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25회제를 맞는 국제로봇올림피아드는 기존의 수학, 물리, 화학 올림피아드 등과 함께 창의적인 과학기술 마인드를 심어주는 국제 규모의 로봇 대회다. 이번 대회에 세계 21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함께했다. 한편 전북기계공고 휴머노이드 동아리 학생들은 지난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에 출전, 국제대회 진출권을 획득했다. /장은성 기자



임인형 교장은 "미래형 교육과정을 적용해 점차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기업가정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은행 남원지점,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기탁

남원시는 설을 맞아 전북은행 남원지점이 시에 선물꾸러미 15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본적인 생활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희망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선물꾸러미 사업을 추진하, 꾸러미에는 즉석밥, 떡볶이(컵), 김, 리면, 커피, 치약, 칫솔, 즉석카레, 수세미 등 3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상익 JB부행장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웃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선물꾸러미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설 명절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모아 후원해 주신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조춘동 애향회, 소외계층 백미 100포 나눔

전주시 조춘동(동장 박정향) 애향회(회장 윤석일)는 지난 2일 관내 경로당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쌀 10kg 백미 100포(400만원 상당)를 조춘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조춘동 애향회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동 주민센터에 '사랑의 쌀 모으기' 창구를 개설, 숭선하여 백미를 기부하고 전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그 뜻을 함께하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소중한 쌀을 이웃과 나누었다. 조춘동 애향회는 매년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봉사나눔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윤석일 애향회장은 "우리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향 조춘동장은 "애향회 회원님들의 관심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제7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개최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덕하, 이하 군공노)이 지난 2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단결된 힘! 하나되는 행복노조!'라는 슬로건 아래 제7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600여 명의 시 조합원을 비롯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경 위원장과 전국시군구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 전국 공무원 단위노조 임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김임준 군산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군공노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는 송철 전 위원장의 이임식과 함께 추두환, 김찬균, 정대현, 김상운 등 역대 군공노 위원장들이 함께 초청되어 군공노의 역사를 되새기고, 조합원의 단결력을 강화, 동시에 재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박덕하 위원장은 "우리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걸어온 발자취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공무원노동조합 역사에 당당히 이름을 새겨온 만큼 군공노의 위상과 긍지를 더욱 일컫히 세우겠다"며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제7대 군공노가 나아가는 방향은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관록 기자



또한 "군산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노동자로서의 행복이 곧 군산시민의 행복과 군산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상생의 노동조합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공무원의 행복과 시민의 행복이 절대 반비례의 관계가 아님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과 상생의 바탕위에서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은 물론 의미 있는 군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록 기자



남원 곳곳 설 명절 훈훈한 이웃 사랑 이어져

남원시 읍면동에 명절 이웃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천면에서는 관내 외곽 농장에서 계란 60판, 아성레미콘에서 리면 30박스를 주천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였으며, 김재하 주천면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따뜻한 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송동면 의용소방대는 현금 60만원을 기탁하고, 아성레미콘에서는 리면 30박스(81만원 상당)를 기탁하고 (유)그린환경건설에서 현금 50만원을 기탁했으며, 노일환 송동면장은 "관내에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19개 읍면동, 9개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일자리 참여 어르신 350명과 내외빈이 참석했다. 1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는 일자리 참여 대표자의 선서문 낭독에 이어, 2부 김제시약사회 박환철 회장을 감사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등의 소양교육으로 진행됐다. 시는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익활동형을 포함한 4개 사업분야에 6,663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56억원 투입해 관내 공공시설물 환경정화 활동, 실버카페 운영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노인일자리 수행 인원을 505명 증원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동, 실버카페 운영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노인일자리 수행 인원을 505명 증원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금지면서 사랑나눔 잇따라

남원시 금지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바램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다. 금지면 남여 의용소방대(대장 김재동, 박병희)에서 각 30만원, 50만원을 기탁하고, 금지면 청년회(회장 이명열)는 관내 경로당 27개소에 리면, 밀치, 키친타올(160만원상당)을 기탁하며 어르신들의 인부를 확인했다. 안민엽 금지면장은 "사회단체장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 돌봄체계 강화에 앞장서 주어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복숭아공선회 회원들, 장학금 기탁 귀감

무주복숭아공선회 조직인 무주공선회(회장 한상철)와 구천동공선회(회장 조지현) 회원들이 2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에 장학금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이 전달한 금액은 412만 9천 600원으로 작년 병해로 어려움을 겪은 상황 속에서도 농가들이 출하한 복숭아 물량에서 길로그랩당 10~11원을 적립해 모은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한상철 회장은 "무주가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무주의 미래가 어린 학생들에게 달린 만큼 장학금이 그 기대와 응원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적극적인 생육 관리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농협 단위 공동선별·계산을 실천하고 있는 무주복숭아공선회는 무주 24명, 구천동 2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운봉라이온스클럽, 설 명절 사랑나눔

남원시 운봉읍은 관내 운봉라이온스클럽(회장 오기탁)에서 지난 2일, 설 명절을 맞아 돼지고기, 누룽지 선물 세트와 성금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약 12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운봉읍 소재지 경로당 34개소와 저소득 7가정에 전달하였으며, 저소득 7가정에는 돼지고기와 함께 현금 30만원과 누룽지 선물세트를 전달하였다. 클럽은 지난해 11월 운봉지역 학생 1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해마다 이웃돕기, 김장나눔 행사, 초중고 학생 장학금 지원, 운봉 시가지 환경정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기탁 회장은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주 운봉읍장은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운봉라이온스클럽 회원분들께 감사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백미 40포대 기탁

무주군가족센터(대표 정성철)에서 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백미 40포대(1포대당 10kg)를 무주군에 기탁해왔다. 정성철 대표는 "무주군가족센터는 지역사회와 오롯이 함께 걸어갈 바란다"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더 힘들고 외로울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자신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용기를 얻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2009년 문을 연 무주군가족지원센터에서는 12명의 직원들이 봉헌어 지원 및 가족 상담, 취약 위기 가족 교육 등 다문화가족 지원 및 건강 가정 지원 사업을 통합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취약계층 한의약 건강관리

순창군보건의료원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약화 방지와 이차 질환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은 관내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환자 67명을 대상으로 매월 2회 한의사와 진료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등 기초 검사와 보건교육 및 침, 뜸, 전기자극기, 파스 등 한의약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의료원은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없는 6개 면을 대상으로 경로당 골골질 튼튼교실을 운영하여 한의약적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63-650-5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왕원 기자